

## 블룸스데이 100주년을 맞아

이종일

주지하다시피 올해는 ‘블룸스데이(Bloomsday)’ 100주년이 된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걸작 『율리시스』(*Ulysses*)에서 주인공 리어폴드 블룸(Leopold Bloom)이 하루 종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을 배회하며 온갖 경험과 명상을 한 바로 그날로부터 따져 꼭 한 세기가 지난 것이다. 세계문학사상 작품의 특정한 시간 배경을 두고 주인공 이름을 따서 ‘아무개의 날’이란 식으로 부르는 사례가 또 있을까? 그러나 조이스 전공자에게는 물론이요, 문학 애호가들에게조차 ‘블룸의 날’ 하면 진한 감동과 애정이 뭉클 되살아나게 마련이다. 그만큼 조이스와 『율리시스』와 블룸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정은 별난 데가 있다.

『율리시스』의 너른 공간에 채워진 그 많은 보물들을 무슨 재주로 일일이 주워달 수가 있으랴? 더블린 시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방대함과 박진성(迫眞性)을 먼저 들까? 혹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허용하는 온갖 형식과 기법상의 실험이란 실험은 다 선을 보인 상상력과 창의성을 내세울까? 아니면 문법과 맞춤법의 한계를 넘나들며 언어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파격과 유희의식을 꼽을까? 그도 아니면 지역적 시대적 편견을 훌쩍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두루 열려 있는 폭넓은 시야와

그러면서도 삶의 속내를 밑바닥까지 헤아리는 징그러운 통찰력을 받들어야 할까?

조이스 문학이 해가 갈수록 빛바래기는커녕 새록새록 새 살을 드러내 보이는 '별일'은 그러므로 놀랄 일이 아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인문사회과학계에 불어 닥친 별의별 이론의 폭풍이 불어와도 가지 꺾이거나 뿌리 뽑히는 법이 없이 오히려 그 바람을 보듬고 도닥거리고 고이 잠재우는 넉넉함을 지닌 나무가 바로 조이스 아니던가? 그리하여 이런 칼 저런 가위로 작품을 베고 자르는 것을 농사로 삼는 이론재단사의 오만이 아니라, 새 잎을 틔워주고 곧은 가지를 뻗게 해줌으로써 나무의 덕을 보려는 농사꾼의 겸허함이야말로 무릇 문학자의 바른 마음가짐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조이스 아니던가?

우리나라에도 '조이스 시(joicity)' - 혹은 '꽃마을(flowerville)' 혹은 '블룸의 세상(Bloomsworld)' -이 이제 어지간히 지어진 듯싶다. 처음 한두 분들이 외로이 공들여 엮어놓은 오두막이 이제는 제법 여럿이 둘러앉아 남부럽지 않은 동아리 행사를 할 만한 사랑방 정도는 된 성부르다. 더 넓은 광장으로 키워내야 하지 않겠는가? 읽어내기 어렵다 하여 영어권 국가의 문학전공자들조차 여간해서 친해질 엄두를 못 내는 조이스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수가 국내에도 이미 서른 정도는 헤아리게 되었다. 벌써 몇 해째 한 해 두 차례씩 학회를 열고 두 권의 학술지를 내며 도도한 학진(學進)의 까탈을 배겨내고 있는 것이 대견하지 않은가? 게다가 격년제로 열리는 제임스조이스 서머스쿨을 통해 전국의 학생들에게 『율리시스』의 에피소드별 강의를 실시하고 있고, 달걸이로 치르는 『율리시스』읽기 모임에는 열다섯이나 되는 '매니어'들이 나와 감론을박하는 가운데 얻어내는 수확이 정기학회 못지않게 쏙쏙한 판이다.

조이스의 고향땅 아일랜드에서는 블룸스데이 100주년 기념 심포시엄이 대대적으로 열리는 모양이다. 우리도 앞서 말한 바탕이 있어 이번 한국영어영문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와 6월 18일에 한 세션을 차지하여 『율리시스』의 에피소드별 논문발표를 갖고 16일에는 아일랜드 대사관이 블룸스데이 축하공연을 하기로 했으며 대회기간 내내 조이스 관련 사진전(김종진 교수 제공)이 열린다. 뿐인가? 조이스학회는 오는 가을에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조이스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온 학자들과 학문교류를 갖기로 했고 이를 계기로 연말에는 영문학술지를 발행할 야심 찬 계획까지 세워놓은 터이다.

이런 큰 행사가 성공을 거두려면 모쪼록 조이스학회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누가 아는가, 호머의 『오디세이』를 토대로 하여 『율리시스』가 나왔듯, 이런 활동들을 밑거름 삼아 『율리시스』를 패러디한 세계적 걸작이 우리 땅에서 나오게 될지름?

(서울대)